

해방 전후 정인보의 교유 관계

이남옥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조선시대 사상사 전공

koman82@koreastudy.or.kr

- I. 머리말
 - II. 파평윤씨 노종파와의 세교와 정인보의 익산 황화면 은거
 - III. 국학대학과 한중문화협회 재건 등에 대한 이만환의 후원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에 저항한 지식인으로 일제 강점 직후 중국으로 가서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귀국 후 1920년대부터는 동아일보의 논설위원과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며 조선학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¹ 학문적으로는 대체로 당대를 대표하는 한학자로 평가받았지만, 날로 쇠퇴해 가는 국학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한 국학자였다.²

그동안 정인보에 대한 연구는 문학·사학·철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국학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³ 다만 정인보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교유에 주목하여 조선학 운동과 연희전문학교에서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 하지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타자에 대한 시선과 대화: 교유와 논쟁을 통해 본 관계의 문화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1-C16).

- 1 이지원, 「日帝下 民族文化 認識의 展開와 民族文化運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303쪽.
- 2 백남운은 『舊園國學散藁』(文教社, 1955)의 서문에서 “爲堂을 稱頌하여 漢學者라고 한다. 爲堂이 果然말로 雲養 以後에 國內에서 學統이 끊어져 가는 漢學界의 泰斗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國寶라고도 하였다. [...] 爲堂은 衰退하여 지는 國學을 振興시키고 坎坎하여져가는 國史를 빛내어 眞과 實을 알게 하여 사람으로 그 本然에 歸하게 하려함이 그의 平生 努力이었다.”라고 하여 정인보의 국학 진흥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3 강석화의 「담원 정인보선생에 대한 연구사 정리」(『애산학보』 39, 2013)에서 당시까지 정인보에 대한 연구가 정리되었다. 그는 정인보에 대한 연구를 개인이력과 인물평, 역사학 관련 연구(고대사 연구·조선후기 실학연구), 사상·철학 관련 연구(세계관과 역사관·양명학적 사유·강화학파·조선학)·문학 작품 연구(시조·문학 작품 및 전기류·한시와 한문학)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후로도 문학·사학·철학 분야에서 모두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4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 관계와 교유의 배경: 백낙준·백남운·송진우와의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73(2016).

만 정인보는 조선후기 소론 가계 및 학통의 진전을 이은 인물로 세교(世交)와 문교(文交)라는 전통적 교유 의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정인보는 1893년(고종 29) 5월 6일에 서울 중현(鍾峴)에서 정은조(鄭闇朝, 1856~1926)와 달성서씨(達城徐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며, 조부는 부평부사를 지낸 정기년(鄭基年, 1816~1865)이다. 이 가문은 성종 대 이조판서 정난중(鄭蘭宗, 1433~1489), 중종 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1462~1538), 효종·현종 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1602~1673) 등 다수의 고위 관료를 배출하였다. 이후로도 정재악(鄭載岳, 知敦寧)-정임선(鄭任先)-정석견(鄭錫曾)-정계순(鄭啓淳, 大司諫)-정동만(鄭東晩, 都正)-정원용(鄭元容, 領議政)-정기세(鄭基世, 副正)/정기년(鄭基年, 蔭正)/정기명(鄭基命, 府使)-정은조(鄭闇朝, 副卿)로 이어지는 학자 관료를 배출한 소론계 가문이라 할 수 있다.

표1- 정원용-정인보 가계의 관직 및 혼인관계

姓名(官職)	妻父姓名(姓貫/官職)	姓名(官職)	妻父姓名(姓貫/官職)
鄭元容(領議政)	金啓洛(江陵金氏/判書)	鄭默朝(進士)	李裕爽(慶州李氏/吏曹參議)
鄭基世(贊成)	金永受(慶州金氏/副正)	鄭信朝	李圭闇(慶州李氏)
鄭基年(蔭正)	尹鼎烈(海平尹氏/大司諫)	鄭闇朝(副卿)	徐相眞(達城徐氏/進士)
鄭基命(府使)	林迥鎭(羅州林氏/郡守) 崔在三(全州崔氏/縣監)	鄭寅普	成健鎬(昌寧成氏/副詹事) 趙東俊(豐壤趙氏)

정인보의 학통 역시 소론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정인보의 스승으로는 정인표(鄭寅杓, 1855~1935), 이건승(李建昇, 1858~1924), 이건방(李建芳, 1861~1939)을 꼽을 수 있는데⁵, 이들은 모두 정계두(鄭齊斗, 1649~1736)로부터 이어지는 하곡학파의 일원이었다. 정계두의 문인 심육(沈鎬, 1685~1753)

5 鄭良婉, 「아버지 齋園의 세 스승: 學山, 耕齋, 蘭谷」, 『陽明學』 13(2005).

계열은 심악(沈錫, 1702~1755)-심신지(沈新之, 1751~1821)-심완륜(沈完倫, 1778~1833)-심대윤(沈大允, 1806~1872)-정인표(鄭寅杓, 1855~1935)로 이어지며, 정제두의 손녀 사위 이광명(李匡明, 1701~1778) 계열은 이충익(李忠翊, 1744~1816)-이면백(李勉伯, 1767~1830)-이시원(李是遠, 1789~1866)-이상학(李象學, 1829~1889)-이건승(李建昇, 1858~1924)/이지원(李止遠, 1801~1866)-이상기(李象夔, 1824~1852)-이건방(李建芳, 1861~1939)으로 이어진다.⁶ 즉 정제두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이 심육과 이광명 등을 통해 정인보까지 계승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인보는 혈통상·학통상으로 소론의 진전을 이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인보는 세교와 문교라는 전통적 교유 의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다만 구한말 격동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소남북의 사색당파의 구분은 이미 그 의미를 퇴색해갔고, 교유 관계 역시 다양성을 보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인보의 교유관계는 그동안 조선학 운동과 연희전문학교에서 깊은 교류를 맺었던 홍명희(洪命熹, 1888~1968), 문일평(文一平, 1888~1936), 송진우(宋鎭禹, 1890~1945), 안재홍(安在鴻, 1891~1965), 백남운(白南雲, 1895~1974), 백낙준(白樂濬, 1895~1985)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⁷ 하지만 정인보의 스승으로 지목되는 정인표·이건승·이건방을 제외하고도 정인보가 백부나 숙부처럼 따랐던 사람으로 홍승헌(洪承憲, 1854~1914)·이범세(李範世, 1874~1940)·박풍서(朴豐緒, 1868~1940)·이희중(李喜鍾, 1876~1941)·유창환(俞昌煥, 1870~1935)·이회영(李會榮, 1866~1932)·이시영(李始榮, 1868~1953)·유진태(俞鎭泰, 1872~1942) 등이 있으며, 학문적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박은식(朴殷植, 1859~1925)과 신채호

6 이남옥, 「정인보의 학문 연원과 조선학 인식」, 『儒學研究』 38(2017), 218~220쪽.

7 윤덕영, 앞의 논문.

(申采浩, 1880~1936)를 제외하고도 그가 존경한 인물로 안효제(安孝濟, 1850~1912)·이상재(李商在, 1850~1927)·이승훈(李昇薰, 1864~1930)·안창호(安昌浩, 1878~1938)·하겸진(河謙鎭, 1870~1946) 등이 있다.⁸

또한 교유한 인물로는 홍명희·문일평·송진우·안재홍 등 외에도 유치웅(兪致雄)·심재찬(沈在瓚)·이빈승(李斌承)·김성수(金性洙, 1891~1955)·현상윤(玄相允, 1893~?)·김법린(金法麟)·김병로(金炳魯, 1887~1964)·백관수(白寬洙, 1889~?)·김용무(金用茂, 1891~?)·허유(許有)·정낙훈(鄭樂薰)·이현규(李玄圭)·김용승(金庸升)·석주명(石宙明, 1908~1950)·양주동(梁柱東, 1903~1977) 등이 있으며, 아끼는 후학으로는 홍이섭(洪以燮, 1914~1974)·민영규(閔泳珪)·성낙서(成樂緒)·민태식(閔泰植)·김춘동(金春東)·정지용(鄭芝溶, 1903~1950)·이원조(李源朝)·김충현(金忠顯)·윤석오(尹錫五) 등이 있었다.⁹

이처럼 수십 명에 달하는 정인보의 교유 인물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구한말-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주요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의 관계는 복잡다기하므로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다소 연구가 부족했던 1930년대 후반 은둔기부터 해방 이후 활동기를 중심으로 정인보의 교유 관계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¹⁰

8 정양완, 「담원문록 발문」,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528~529쪽.

9 위의 책, 529쪽.

10 정인보의 생애는 대체로 성장기(1883~1909), 수학기(1910~1922), 교단저술기(1923~1937), 은둔기(1938~1945), 광복활동기(1945~1950)로 구분되고 있다(趙東杰, 「年譜를 통해 본 鄭寅普와 白南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991), 389쪽).

II. 파평윤씨 노종파와의 세교와 정인보의 익산 황화면 은거

정인보는 파평윤씨 노종파(坡平尹氏 魯宗派)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같은 소론계라는 선대로부터 이어진 인연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시작은 윤기중(尹器重)이었다. 정인보는 스승 이견방을 통해 윤기중에 대해 “사우들이 모두 그를 예를 아는 자라고들 하더라”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윤기중이 서울에 와서 만나보게 되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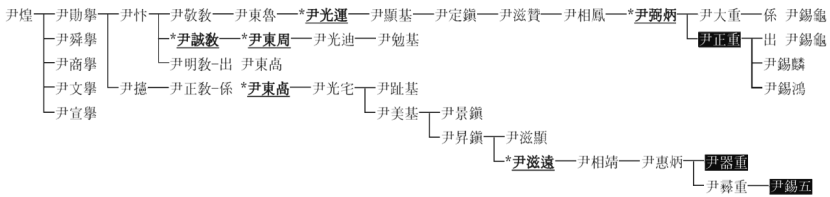


그림1-윤황-윤정중·윤기중·윤석오 관계 약도¹²

주: *은 정인보가 묘비문을 찬술한 인물

- 11 「중리신거기【中里新居記】」, 『담원문록』 하, 297쪽.
- 12 윤황-윤기중·윤석오 관계 약도는 1829년에 尹光閔 등이 편찬한 『坡平尹氏魯宗派譜』(장서각 청구기호: B10B 108), 『萬家譜』를 기초로 하고, 『담원문록』에 수록된 파평윤씨 노종파 묘비문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담원문록』에 수록된 파평윤씨 노종파 묘비문은 다음과 같다.

대상	『담원문록』 수록 편명	『담원문록』 수록면	칭탁인	찬술년
윤성교	「길주목사 윤공의 묘표【吉州牧使尹公墓表】」	『담원문록』 중, 271-277쪽	윤기중	1939
윤동주	「학생 윤공 묘표【學生尹公墓表】」	『담원문록』 중, 278-279쪽	윤기중	
박유인	「박유인 묘지명【朴儒人墓誌銘】」	『담원문록』 하, 77-82쪽	윤석오	1943
윤광운	「응교 윤공 묘표【應教尹公墓表】」	『담원문록』 하, 317-321쪽	윤정중	1936-
윤 윤	「봉사 윤공 묘표【奉事尹公墓表】」	『담원문록』 하, 322-327쪽	윤기중	
윤동설	「학생 윤공 묘표【學生尹公墓表】」	『담원문록』 하, 328-330쪽	윤기중	1945
윤광서	「학생 윤공 묘표【學生尹公墓表】」	『담원문록』 하, 331-337쪽	윤기중	
윤자원	「지옹 윤공 묘갈명【芝翁尹公墓碣銘】」	『담원문록』 하, 338-343쪽	윤기중	
윤필병	「결성현감 윤공 묘갈명【結城懸監尹公墓碣銘】」	『담원문록』 하, 344-350쪽	윤정중	1944

이후 정인보는 윤기중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스승과 선배로 모셨던 이견방·이건승·박풍서·이범세·이희중 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에 정인보는 “옛 친구로는 漢江以南에는 그대가 있을 뿐이요, 옛 경기도 한 귀퉁이(楊州郡 蘆海面 倉洞)에서 뜬구름에 목을 늘이고 마음을 그대에게 향하는 자라고는 또한 오직 普가 남았을 뿐이다.”라고 하였고¹³, 윤기중이 황화정리(皇華亭里)로 이거한 후에 “가시는 길에 흑 제 마을(臨邛, 盖山 皇華亭里)을 거치시는지 목을 늘이고 발돋움하고 기다린 지 벌써 열흘 남짓하오. 아니면 아직 嶺南에 머물고 계시리라.”라고 하여 정인보의 방문을 기다릴 정도였다.¹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인보는 윤기중의 청에 의해 그의 직계와 방계 선조인 윤성교(尹誠教), 윤동주(尹東周), 윤동설(尹東高), 윤광운(尹光運), 윤자원(尹滋遠) 등에 대한 묘비문을 찬술하였다. 또한 정인보는 윤기중이 황화정리로 이거하자 「중리신거기(中里新居記)」을 지어 그의 학문과 행실을 비롯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윤기중은 이견방이 찬술한 유봉휘(柳鳳輝, 1659~1727)의 신도비명¹⁵을 읽고 “이 글을 지어서 저 黨(老論)의 鐵案이 거짓임을 깨어 부수고, 몇분의 외로운 충성을 눈처럼 밝혀서 永遠히 빛이 있게 하였으니 蘭谷의 功은 크오.”라고 하였는데, 같은 소론계라는 점이 작용하여 이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윤기중은 조카인 윤석오와 함께 정인보의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만약 우리 蔣園에게 이 제목을 짓게 한다면 그 文章이 마땅히 어떠한 것인가?
[...] 蔣園의 文勢는 우레가 진동하고 龍이 달리는 위풍이 있고, 깊이 스며드는

13 「중리신거기」, 『담원문록』 하, 298쪽.

14 「尹器重 先生이 담원 선생에게 한 서한」, 『담원문록』 상, 123쪽.

15 李建芳, 『蘭谷存稿』 권11 「左議政晚庵柳公神道碑銘」.

16 「尹器重 先生이 담원 선생에게 한 서한」, 위의 책, 123~124쪽.

자옥한 전국의 향내가 있고, 일을 따질 때 慷慨함을 극에 이르게 하여 질탕한 소리와 彩色이 사람의 정신을 번쩍 불러일으켜 그 神妙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비록 타고난 品性에도 기인하지만 그 이룩함이 남다르니, 人工 또한 속일 수 없다.¹⁷

이 때문에 윤기중을 비롯해 과평윤씨 노종과 인물들은 문명(文名)이 높았던 정인보에게 선대에 대한 묘문을 찬술해 주도록 청했다.¹⁸ 또한 윤석오는 정인보에게 학문과 문장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¹⁹ 정인보 역시 “어제 조카님<윤석오> 편지를 받으니 허우룩한 마음 없으려면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누가 나를 기쁘게 하리오?”²⁰, “조카님<윤석오>은 우리 무리의 뛰어난 후배니”²¹, “보내 준 편지를 보니 글 짓는 솜씨가 典雅하고도 아름다우며 속에 굳고 건실함을 머금고 있으니 자네<윤석오> 文章의 造詣가 문득 이 정도에 도달했던 말인가?”²², “내가 알고 좋아하는 이 중에서 이 道에 대해서는 그대<윤석오>에게 기대가 가오.”²³, “뒤에 온 편지는 더욱 넓고 커서 사람을 감동시켰고 또한 結構의 전개·수합 등의 변화가 굽이지고, 문체가

-
- 17 「尹器重 先生이 담원 선생에게 한 서한」, 위의 책, 123~125쪽. “家侄亦來讀, 因相謂曰: ‘使吾舊園作此題, 其文章當何如? [...] 舊園之文勢如雷動龍行, 而有沈浸醞郁之味, 其論事極致慷慨跌宕, 聲彩喚人精神, 妙不可測, 雖因天稟, 而所就有異, 人工亦不可誣也.’”
- 18 정인보가 쓴 묘비문 가운데 「박유인 묘지명【林孺人 墓誌銘】은 윤석오와의 관계로 찬술한 것이다. 박유인은 윤석오의 조모이다.
- 19 정인보는 윤석오를 아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유람에 동행시키기도 했다. 정인보는 石顛스님, 安在鴻, 윤석오 등과 함께 1934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을 출발해서 청주 화양동, 속리산 법주사, 논산 관촉사, 정읍 내장사, 순창 신경준 고택, 순천, 여수, 다도해, 목포 등을 유람하고 돌아왔다. 도중에 논산 관촉사를 보고 五岡里에 있는 윤석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했다.〔舊園 鄭寅普全集〕 1, 「南遊寄信」(延世大學校出版部, 1983), 159~214쪽)
- 20 「윤여련 기중에게 보내는 편지【與尹與璉書 器重】」, 『담원문록』 하, 400쪽.
- 21 「윤여련 기중에게 보내는 편지【與尹與璉書 器重】」, 위의 책, 400쪽.
- 22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1)【答尹士建錫五】」, 위의 책, 392쪽.
- 23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1)【答尹士建錫五】」, 위의 책, 392쪽.

번쩍번쩍하여 보고 또 보고 손에서 놓을 수 없었소”²⁴라고 할 정도로 윤석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다. 정인보는 윤석오의 문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여러 經書의 要諦는 익숙히 튼튼히 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程朱의 글을 한번 읽히고 싶습니다. 程子의 글은 간결하고도 심원하여 초학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나, 朱子의 글은 禮儀 三百에 威儀 三千이 다 이에 갖추어 있어서 초학으로부터 뺀어 올라가기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며, 게다가 문장의 기상이 순후하기가 깊은 바다 같고 충충한 못과 같아서, 입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정신과 어울릴 것입니다.²⁵

즉 경서를 기초로 하되 정주(程朱)의 글을 통해 문장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보는 불가(佛家)의 말을 인용하며 “깨달은 뒤에 다시금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한다 하였으니 부디 이로써 스스로를 어여삐 여기지 말고, 더욱 經傳을 잡아 익숙해지도록 읽기 바라며, 한편 손수 책을 베낄 때, 내 마음으로 정밀하게 깨달으면, 그날은 깊이 터득함이 있는 것이오”라고 하면서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⁶ 정인보는 윤석오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학문에 전념하긴 어렵겠지만 사사물물(事事物物)에서 이치를 구하도록 권하였다. 정인보는 “사물을 꼼꼼히 연구함은 역시 독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오”, “낮에는 人事에 접하더라도 밤에 神氣가 좋거든 書史로 연구하면, 일은 일대로 폐하지 않고서 학문이 덩달아 깊어짐을 알게 될 것이니”라고 하였는데²⁷, 이는

24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2)【答尹士建錫五】」, 위의 책, 395쪽.

25 「윤여련 기중에게 보내는 편지」, 위의 책, 400~401쪽.

26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1)」, 위의 책, 393쪽.

27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2)」, 위의 책, 396~397쪽.

내 마음에서 사사물물의 이치를 구하여 마음과 이치를 구분하지 않는 양명학의 치양지로 내 마음의 양지를 사사물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또한 당시 중국 학계의 주요 인물인 장병린(章炳麟, 1898~1936)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章氏는 숨씨가 뛰어난 사람으로 논의의 전개·수합 등의 변화가 아주 볼 만한데, 만약 進化論 중의 一章을 쪼개면 살가죽 속의 곁이 층층이 달려 나가는 것 같으니, 한가할 때 수십 번 읽으면 좋을 것이요.”라고 하였다.²⁸ 정인보는 당시 장병린의 광박(宏博)하고 전아(典雅)함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는 장병린이 청나라의 말에 태어나 박학(樸學)을 집대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힘써 노력한다면 윤석오 역시 그와 같은 경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²⁹

한편, 윤기중·윤석오 외에도 정인보와 교유한 파평윤씨 노종파 인물로 윤정중을 들 수 있다. 윤정중은 윤황의 10대 종손 윤필병의 둘째 아들로 형 윤대중이 일찍 죽은 이후로 당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다. 윤정중은 정인보에게 종택의 「백련당기(白蓮堂記)」, 6대조 윤광운과 부친 윤필병의 묘비문을 청하였다. 정인보는 이글에서 파평윤씨 노종파의 종손과 지손이 노성에 모여 살며 집안의 법도를 지키고 화락하게 살아감을 기렸다.

그 집은 바로 八松 尹文正公 이후 여러 代 大宗 무덤에서 수백 보 못미처에 있는데다가, 사당은 不遷位라, 후손이 철철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넓고도 특 트였다. [...] 윤씨네 가훈이 이미 신칙되어 아버이를 소중히 여기기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에 종가를 공경하니, 그 의가 사람마다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라, 종가를 보존하는 법이 충청남도

28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1)」, 위의 책, 394쪽.

29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2)」, 위의 책, 396쪽.

서 으뜸이라. 이제 이 집도 실은 始卿의 집안 할아버지 滋參 씨가 재산을 기울여 세운 것인데, 오륙십 년이 지나도 마치 새로 지은 것과 같다.³⁰

魯城 長久里 文正公 무덤 아래서 대대로 살아, 종손이 사당을 받들며 그 집을 지키면서 공에 이르렀는데, 문정공의 자손이 대부분 어질고, 支孫들이 몹시 퍼지고 더욱 잘되었다. 대개 魯城에 모여 살거나, 더러 서울 살더라도 후손을 바라보며 그 고향을 뜨지 않았다.³¹

정인보는 1945년 6월에 윤정중의 환갑을 기려 “벗 尹始卿(윤정중)이 올에 예순이라. 생신에 淸가 본대 가려고 했으나 갈 수가 없어 편지로 부쳐 말로나마 壽를 기리려 하니, 일찍이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 알아주고 정답게 지낸 지 오래다 보니, 남달리 깊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친교를 표하기도 했다.³²

한편, 서울에서 생활하던 정인보는 일제의 탄압 속에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1945년 3월에 윤기중과 윤석오가 있는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로 이사 가서 은거하였다.³³ 정인보는 이미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

30 「결성현감 윤공 묘갈명【結城懸監尹公墓碣銘】」, 위의 책, 345쪽.

31 「백련당기【白蓮堂記】」, 위의 책, 86~87쪽.

32 「윤시경 육십수 서【尹始卿 六十壽序】」, 위의 책, 137~139쪽.

33 1893년 서울 장흥방 회현동에서 태어난 정인보는 경기도 양근(1903), 충청도 진천 금한리(1904), 충청도 목천 동리(1918) 등으로 이사 다니다가 1920년에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1920년에 원서동에 기숙할 곳을 마련하고 1922년 연희전문학교로 출강하면서 서울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는 1923년에 목천에서 서울 양사동 66번지로 이사하고 연희전문학교의 전임이 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후 효자동(1925), 송인동(1928), 미근동(1930), 수창동(1933) 등으로 이사 다니다가, 1937년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동아일보 연재와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1940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 733으로 이사하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1945년 3월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로 이사 갔다가 해방 후 서울 왕십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로는 서울 흑석동(1946), 남산동(1948) 등에 거주하였다.(趙東杰, 「年譜를 통해 본 鄭寅普와 白南雲」,

리로 이거한 윤기중을 위해 「중리신거기」을 지어주면서 “만약 普가 어느 날 온 식구와 함께 군의 곁에 가서 그 精華에 은혜 입을 수 있다면 넉넉히 시끄러움을 잊을 수 있겠고, 또한 아래로 자손에게 薰染이 되려면, 오직 가난 때문에 스스로 실행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또 “普가 이미 군의 이웃에 갈 수는 없지만, 이 請을 어찌 가히 저버리리오?”라고 하였는데, 친교가 있던 윤기중과 함께 중기리로 이거해 살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이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었다.³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윤기중과 윤석오가 도움을 준 덕분에 정인보는 광복을 맞이해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익산 황화면에 은거할 수 있었다.

Ⅲ. 국학대학과 한중문화협회 재건 등에 대한 이만환의 후원

정인보가 1945년 3월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 윤석오의 집에 은거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경복 칠곡 매원의 이만환(李萬煥, 1911~1968)이었다.³⁵ 정인보는 “하농(이만환의 호)께서 다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991), 389~396쪽)

34 「중리신거기」, 『담원문록』 하, 300쪽.

3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칠곡 석전 광주씨 해은 고택 전적을 수집·조사·정리하여 2007년에 『廣州李氏 仁同張氏 奇託典籍』으로 출간한 바 있다. 장서각은 정인보가 이만환에게 보낸 간찰(39건) 및 엽서(8건)를 소장하고 있으며, 『廣州李氏 仁同張氏 奇託典籍』에서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96을 비롯한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본고는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10, 000017, 000041, 000081, 000083, 000085, 000092, 000096, 000098, 000109, 000114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廣州李氏 仁同張氏 奇託典籍』에서 탈초·표점·번역한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17, 000096, 000114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필자가 탈초·표점·번역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임노직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에 편지를 보내실 때는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 윤석오의 집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군은 일찍이 저에게 수학하여 그 재능이 뛰어나며, 저를 위해 서욕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은거 장소를 알렸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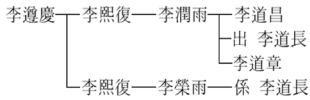


그림2-이윤우-이도장 관계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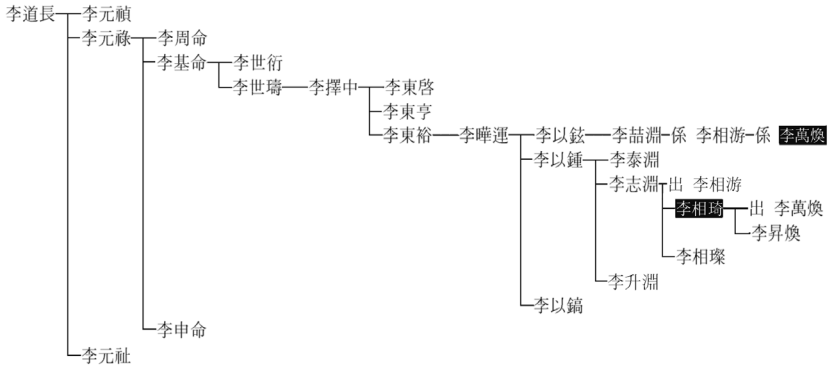


그림3-광주이씨 칠곡파 이만환 가계 약도³⁷

정인보와 이만환의 관계는 광주이씨 칠곡파(廣州李氏 漆谷派)의 일원인 이수기(李壽麒, 1885~1966)를 비롯해 그 선조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수기는 1925년 ‘제2차 유림단 의거’로 인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김헌식(金憲植)·홍묵(洪默)·이동흠(李棟欽) 등과 함께 경상도 지역에

36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81. “荷農他日書信便書，以益山郡 皇華面中基里尹錫五處如可。尹君，曾學於我，其才識可愛，方爲我築城書屋。”

37 <이윤우-이도장 관계 약도> 및 <광주이씨 칠곡파 이만환 가계 약도>는 『廣州李氏漆谷派世譜』(譜典出版社, 1986), 『萬家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廣州李氏漆谷派世譜』의 상권 12~13쪽, 720~721쪽, 812~825쪽에 해당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것이다.³⁸

정인보는 이수기를 벗으로 여기고 그의 환갑에 시를 보내 수를 빌기도 했는데, 이 시에서 “**邃軒**(이수기)의 11대조 **洛村公**(이도장)이 벼슬을 버리고 시골 가서 살 때 나의 선조 **翼憲公**(정태화)이 영남절도사로서 찾아가셨음이 『**歸巖集**』에 보임”이라고 하여 정인보의 선조인 정태화(鄭太和, 1602~1673)와 이수기 및 이만환의 선조 이도장(李道長, 1603~1644) 사이에 친교가 있음을 밝혔다.³⁹ 또 정인보는 “낙동강가에 열 대를 이어온 청렴한 **家風**(淸風 十世洛江濱)⁴⁰, “영남의 내 벗을 따지자면 갑자기 반가움에 눈썹이 으쓱(嶺外 論交驟聳眉)⁴¹”이라고 하여 이도장 이후 광주이씨 칠곡파 인물들에 대한 호감을 내비쳤다. “**世交**가 있으면 인사만으로도 오랜 벗이 된다⁴²”는 정인보의 평소 언사에 비추어보면, 정태화와 이도장 대부터 이어져 온 세교로 정인보는 광주이씨 칠곡파 인물들과 오랜 벗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³

38 金喜坤, 「제2차 유림단의거 연구: 心山 金昌淑의 활동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38(2001), 475~456쪽.

39 「벗 수헌 이수기의 회갑에 그 쓸쓸하고 행하여 기쁨이 적을 것을 생각하여 시를 보내 수를 빌다【**邃軒李友壽麒周甲 念其蕭條寡權 奇詩爲壽**】」, 『담원문록』 상; 『담원문록』 중, 83~88쪽; 이도장의 아들 이원정의 문집인 『귀암집』에 “지난 임오년(壬午年, 1642)은 선군(이도장)께서 질병으로 인해 향촌으로 물러나신지 이미 몇 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상공(정태화)께서 영남절도사로서 향곡에 방문하시어 각기 운수(雲樹)의 그리움을 풀고 평소 품었던 생각을 온안히 토하여 말에 싣고 웃음에 실어 밤을 지새웠습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李元禎, 『歸巖集』권7 「祭鄭領相【太和】文」. “昔壬午之歲, 吾先君以疾退休已有年矣. 惟時相公, 以嶺南之節, 訪于鄉曲. 各紓雲樹之戀, 穩吐宿昔之懷, 載言載笑, 竟晷竟夕.”]

40 「벗 수헌 이수기의 회갑에 그 쓸쓸하고 행하여 기쁨이 적을 것을 생각하여 시를 보내 수를 빌다」, 『담원문록』 중, 84~85쪽.

41 「벗 수헌 이수기의 회갑에 그 쓸쓸하고 행하여 기쁨이 적을 것을 생각하여 시를 보내 수를 빌다」, 위의 책, 87쪽.

42 「취정(박승돈)에게 차운하다【**次韻翠庭**】」, 위의 책, 180쪽.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수집·조사·정리한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

특히 이만환과 그의 생부 이상기(李相琦, 1881~1953)와는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만환이 자신의 생부 이상기가 지은 분송(盆松)과 분매(盆梅)에 관한 시를 보내고 화답을 청하자 정인보는 그 시의 운에 차운하여 시를 보내기도 하였⁴⁴, 이상기의 환갑에 그를 위한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다.⁴⁵

講來世好感當年	世誼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 당시가 생각나니
一壑如君望杳然	한 골짜기씩 차지하고 살던 집 이제 와선 아득하나
[...]	
令郎有意勤邀我	자제가 생각 있어 정성껏 날 초청했으나
此日替行聊累篇	오늘 가는 대신 글 몇 편 보내옵네. ⁴⁶

정인보는 1939년에 광주이씨 칠곡파의 세거지인 매원(梅院)을 방문하여 시를 짓고 이상기·이만환 등과 교류하였다.⁴⁷ 또한 이때 해운정(海雲亭)을 다녀와서는 “매번 창문을 열고 안개 낀 물결과 작은 섬들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해운정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감흥을 느꼈고⁴⁸, 이후 해운정에 대한 시를 짓기도 했다.⁴⁹

籍 書簡通告類)을 통해 본다면 정인보는 이만환과 최소 1939년부터 1948년 이후까지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4 「칠곡 범일 이만환이 그 어르신네 금당의 분송·분매시를 보내고 화답하기를 청하기에【柒谷李範一萬煥寄示其尊人錦堂盆松盆梅詩 請和】」, 『담원문록』 상, 473~474쪽; 「먼저 운에 거퍼 차운하다【疊次前韻】」, 같은 책, 475~476쪽.
- 45 「금당 이상기의 주갑 원운【李錦堂相琦 周甲 原韻】」, 『담원문록』 중, 547~549쪽.
- 46 「금당 이상기의 주갑 원운」, 위의 책, 548~549쪽.
- 47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114. “素拙韻語，獨以不耐苦索，信筆縱橫，向年梅園諸句，速則速矣，自前秋來，文思頓閉，即數句無以綴得.”
- 48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114. “每開窓望煙波洲渚，未嘗不思海雲亭也.”
- 49 「이씨의 해운정 원운에 2수를 적다【李氏 海雲亭 原韻 二首】」, 『담원문록』 중, 530~531쪽.

정인보는 이만환과 시를 통한 교류를 이어갔는데, 이만환의 시에 감흥이 일어 차운하거나 평론하기도 했다.⁵⁰ 1940년 경 병석에 있던 정인보는 이만환이 보낸 시 3수를 받고 감회를 담아 그 시에 차운하여 7언 율시 3수를 적어 답장을 하기도 하였다.⁵¹ 또한 정인보는 이만환에게 엽서를 보내 자신의 해운정 시의 구절을 수정하고, 앞서 보냈던 이수기의 환갑시에 대한 이만환의 견해를 청하기도 했다.⁵²

1939년 매월에서의 만남 이후 정인보와 이만환은 다시 만나길 고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1940년 봄에는 이만환이 정인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정인보가 일이 있어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귀환이 늦어져 결국 만나지 못했다.⁵³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⁵⁴, 정인보는 이만환에게 자신의 스승인 이견방의 장자 이종하(李琮夏, 1883~1940)의 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⁵⁵ 1945년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 윤석오의 집으로의 은거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주변에도 전해달라고 하는 등 이만환을 특별한 교류 대상을 인식하였다.⁵⁶ 이만환 역시 정인보에게 능금과 땅콩을 보내거나

-
- 50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41. “範一爲余誦其所作詩, 余安爲討論? 且次其韻.”
- 51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17. “荷農寄詩三篇, 纏綿緝側之思·道壯駭厲之音, 使病夫興復, 不識既已走筆步和, 長夜無寐, 又復疊之.”
- 52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144. “昨付小牘當先此抵照也. 前呈海雲亭詩第一首雁下, 改以簾捲如何. 刻揭亭上則不宥, 不細做故了. 邃軒周甲詩, 荷農見之何如耶.”
- 53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114. “胤君巧值弟當發鄉行時, 空費數日留, 竟落莫南邁, 其後遂不能來往, 見今又無稱心, 故雖日欲見面, 而難於簡招也.”
- 54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85. “荷農爲我北上, 而我遽南行, 歸又遲致.”
- 55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10. “昨又喪一知好, 卽吾師蘭翁長胤也.”; 1941년 정인보는 이종하의 묘지를 작성하였다.(「황헌 이군 묘지【黃軒 李君墓誌】」, 『담원문록』 중, 536~538쪽)

집안 살림을 보살펴주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진학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였다.⁵⁷

1945년 해방 이후 정인보는 남조선민주의원 의원(南朝鮮民主議院 議員, 1946),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大韓獨立促成國民會 副委員長, 1946), 전조선문필가협회장(全朝鮮文筆家協會長, 1946), 국학대학장(國學大學長, 1947), 검찰위원장(監察委員長, 1948) 등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였지만, 정치 활동보다는 국학 연구 등 학술 활동에 더욱 큰 힘을 기울였다.⁵⁸ 이 과정에서 정인보는 국학대학 및 한중문화협회 재건과 관련하여 이만환에게 주요한 내용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저는 여름 사이에 政界를 벗어나 예전처럼 頭陀山에서 칩거하고 있었습니다만, 國學의 諸生들이 저의 떠남을 억지로 만류하는 바람에 새해 이후로는 다시 學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 국학 한 가지 일은 그 관계됨이 매우 큰데,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생각하기를, 국학의 長으로 취임하는 일도 또한 정치를 도모하는 방법이니, 구차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길 뿐입니다.

56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83. “趣倭館至論山, 較京則甚近, 特換車太田爲不便, 然亦騰於清涼改乘也. 論山驛前, 有定期行自動車, 買礪山行票, 不過二圓. 鄙居皇華亭, 面所之在, 借稱長久逢, 過此即礪山也. 車行於礪山爲準, 而鄙居與面所相望, 苦徑下面所前, 然後可即到也. 下車即望高原負山人家成聚, 指此以行, 則自渡溪自登丘陵, 既到俄. 望人家處, 問尹錫五所住, 則當指示, 雖不問, 右折而行, 至山下墨板代牆之廣庭見字此即是也. 鄙居, 雖此可百餘步, 新築未盡, 門茅髣髴, 按此以尋可也. 尹君熟問, 荷農常歡然迎導. [...] 柳用夏君餘便作書報我南從爲好.”

57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109. “遠寄林擒·花生以糧者, 三家人歎譁佳饌, 累旬而修謝.”;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98. “聞近者荷農有助, 家人賴紓旬間眉. 然其後, 又復困蟲臂鼠肝, 不知竟當作何狀也. 令胤試延校, 不得諧, 歎我力綿, 欲使更就東國大學, 而亦時晚矣, 不如姑就故校習所. 謂高等中學, 無論京鄉, 校多師寡, 非細問也. 鄙居既遠城闈, 近又厭出, 閉戶亦久矣. 日課左氏傳, 頗覺有勝於前, 而荷農不可得見, 奈何.”

58 趙東杰, 앞의 논문.

다만 학교도 또한 時俗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겉으로 교수 노릇 하는 자들은 대반이 우리들과 취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여 까마득히 物情 밖에 서 있고자 한다면, 오로지 財團을 확고히 세워서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나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다가 서울에는 同志도 거의 없다 보니, 한스럽습니다. 대개 이 학교는 당초 적은 재정으로 창설하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科目은 비록 대학에 부끄럽지 않지만 실로 文教部의 대학 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름지기 독지가를 만나 3, 4백 석의 기부로써 힘껏 하나의 큰 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컨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이 이 재단의 운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농은 저의 동지입니다. 정계는 아직 진출할 때가 아니니, 우선 이 學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영남의 지역 중 힘이 미칠 수 있는 곳을 날날이 헤아린 뒤에 함께 도모하여 의론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록 심히 수고롭다 하더라도 몸소 방문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몇 곳의 5, 6백 석을 합하여 몇 개를 얻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널리 모금하기를 꾀하더라도 가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 찾아가서 직접 의논하기를 매우 원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의 통행이 극히 어려워서 저와 같은 병약자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농은 모름지기 힘껏 도모해주십시오.⁵⁹

국학대학은 1929년 설립된 보명의숙(普明義塾)에서 비롯되는데, 1933년

59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96. “普夏間, 擺脫政界, 依舊閉戶頭陀. 國學諸生, 強擊我去, 獻歲以後, 又作學界一人矣. [...] 國學一段, 關係甚大, 區區迂計, 竊謂就長國學, 亦所以圖政, 非苟而已也. 但學校亦不出時俗窠臼, 外爲教授者, 大半與吾輩異趣, 欲一番整理, 適立物表, 則惟有確立財團, 以總衆情, 而吾之就彼不久, 京中絕少同志, 可歎. 蓋此校, 初由小費財倡設, 故雖科目不媿大學, 而實不得文教部大學認可, 今須得篤志家, 以三四千石寄附, 勒成一大財團, 要之, 出義多者, 主持此財團也. 荷農, 吾一個同志也. 政界, 尙非進出時, 姑共成此學府, 亦可望. 歷數嶺中力所及處, 其可與圖議, 則雖甚勞, 幸躬訪要請. 若數處五六百石, 合得幾個, 則其餘雖廣圖鳩聚, 可也. 前此甚欲一往面議, 而見今車行極艱, 如吾疲病者, 萬無自力之道. 荷農須勉圖之.”; 달초 및 번역은 『廣州李氏 仁同張氏 寄託典籍』 24~25쪽 참고.

에 정봉헌(鄭鳳鉉)이 보명의숙을 인수하여 화산재단(華山財團)을 만들고 화산보통학교(華山普通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45년에는 정봉헌의 장손 정의채(鄭義采)와 그 가족들이 기부하여 국학전문학교(國學專門學校) 설립 인가를 받았다.⁶⁰ 국학전문학교는 대학(大學)으로 승격하고자 정의채와 기성회에서 재단을 세워 준비하였으나⁶¹, 당초 적은 재정으로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문교부의 대학 인가를 얻기 어려웠다.

1946년 11월에 국학전문교장(國學專門敎長)에 취임한 정인보는 영남 지역 유지들에게 기부를 받아 재정을 확충하여 대학으로의 승격이 가능케 하고자 이만환에게 요청했다.⁶² 결국 정인보의 노력과 이만환 등의 도움 그리고 재단 이사장인 정의채 및 그의 가족들의 기부로 재정을 확보하여 1947년 11월 19일에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대학으로 승격하게 되었고, 국학대학 초대 이사장에 정의채, 초대 교장에 정열모(鄭烈模), 초대 학장에 정인보가 취임하였다.⁶³

60 송강호, 「國學大學의 滿蒙語敎材: 表文化 著, 『蒙古語·滿洲語敎科書』, 『만주연구』 13(2012), 182~183쪽.

61 《동아일보》, 1946년 5월 29일자 기사. “國學전문학교에서는 이번 화제 개정에 따라 대학을 승격하려고 기성회를 결성하였는데 동교 교장 鄭義采씨는 五백만원을 기부하기로 되어 동기성회에서는 나머지 五백만원을 모집하여 一천만원의 一재단을 세우려고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62 《조선일보》, 1946년 11월 14일자 기사. “국학(國學)전문학교에서는 현재 결원 중인 교장 추천에 있어서 장차 승격될 국학대학학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학계의 권위자를 전형중이던차 이번에 사학계(史學界)에서 이름이 높은 정인보(鄭寅普)씨가 취임하기로 결정되었다.”

63 《경향신문》, 1947년 11월 27일자 기사. “국학전문학교에서는 그동안 국학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맹활동 중이던 바 동교 재단의 창설자인 고정봉헌(故鄭鳳鉉)씨의 부인 김(金)여사를 비롯하여 자부인 고대복(高大福)여사와 영손인 정의채(鄭義采)씨는 고인의 유지를 계승하여 그 재산중 약 一억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희사하였다 한다. 이 낭보를 들은 서울 창성동(昌成洞)에 거주하는 고봉기(高鳳基)씨는 역시 四천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하였다는 바 국전(國專)은 이로써 지난 十九일부로 정식대학으로 인가가 되어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1948년 7월에 정인보는 재단 이사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학생회는 즉각 재단에 정인보의 유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교수회 역시 사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보의 사직이 그대로 처리되었다.⁶⁴

한편, 1942년 항일독립운동의 협력을 위해 성립된 한중문화협회(韓中文化協會)가 해방 후 확장하면서 정인보는 부회장이 되었다.⁶⁵ 또한 긴밀한 한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정학원을 만들었는데, 정인보는 중정학원의 부원장에도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한중문화협회는 이번에 확장하여 이시영씨가 회장이 되고 제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중정학원(中正學院) 역시 학당을 만들었으니, 중정(中正)은 장총수(蔣總帥, 장개석)의 이름입니다. 한중관계는 긴밀하니, 이로부터 모든 일은 서로 도와주기를 기약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학술·문자(文字)·언어(言語)·지리(地理) 등 중국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정학원은 이 때문에 장총수와 백범 김구 주석이 이미 오래 전부터

64 「鄭寅普氏國大辭任」, 《경향신문》, 1948년 7월 17일자 기사; 「國學大學長留任要求 學生會에서 聲明書」, 《조선일보》, 1948년 7월 24일자 기사; 「國學大學長鄭氏 辭表撤回를 決議」, 《경향신문》, 1948년 8월 4일자 기사.

65 한중문화협회는 1942년 10월 11일에 한국 측 김구·조소앙·이청천·김원봉 등과 중국 측 손과(孫科)·오철성(吳鐵城)·백송희(白崇禧)·주은래(周恩來) 등 400여 명이 참가하여 중경시 방송국에서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성립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장개석 역시 훈사를 보내 협회의 창립을 축하하였다. 이 훈사에서 “中韓文化의 交流는 3千餘年の 歷史를 가지고 있고, 양국은 唇齒相依할 뿐만 아니라 같은 手足를 가지고 있다. 殘虐한 日寇는 中韓의 公敵이다. [...] 韓國의 志士들이 復國運動과 反侵略戰爭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도울 것이고, 양국은 그 문화를 지키고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여 民族復興의 基本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한중문화협회의 성립 목적이 역사적 우의를 바탕으로 항일독립운동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시준,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2010), 375~382쪽)

서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재단을 모아야 해서 김공을 추대하여 원장을 삼고, 저를 부원장으로 위촉한다고 합니다. 하농께서 서울에 온 뒤에 이 일도 함께 상의하고 도와주십시오.⁶⁶

정인보는 이러한 상황을 이만환에게 알리면서 “칠곡 근처 고을은 궁핍하지 않으니 하농 동지께서 노력하시어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金堤)와 광주(光州) 사이에는 의논할 만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록 하농처럼 정성스럽지는 않지만 만일의 상황에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양력으로 다음달 초에 잠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재정 확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세교와 문교를 통한 인연이 해방 정국에서 국학과 한중 교류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동지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파평윤씨 노종파·광주이씨 칠곡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방 전후 정인보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제 강점기 일제에 저항한 지식인이었던 정인보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조선학 운동과 연희전문학교

66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92. “韓中文化協會, 次第擴張, 李始榮氏爲會長, 普副之. 而日間中正學院, 又堂勑立, 中正蔣總帥名也. 韓中關係甚密, 從此萬般, 相期扶携. 故中國學術文字言語地理凡關中國, 皆宜收容熟悉. 中正學院, 以此, 而蔣帥與我金白凡主席, 商略已久云. 此亦財團的聚, 推金公爲院長, 聞以副屬我. 荷農來京後, 此事亦須商助.”

67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000092. “漆谷近郡當不乏荷農同志, 切須努力, 又須及早也. 金堤光州間, 有數處可議處, 雖不如荷農拳拳, 不能無萬一冀. 故陽曆來月初, 欲暫往歷訪.”

에서의 인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조선후기 소론 가계 및 학통의 진전을 이은 정인보는 세교와 문교라는 전통적 교유 의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가 해방 전후 교류했던 대표적 인물은 바로 충남 논산 및 전북 익산의 윤기중, 경북 칠곡의 이만환이었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세교와 문교로 정인보와 교유하였다.

정인보와 파평윤씨 노종과 인물들의 긴밀한 관계의 직접적 시작은 당시에 밝은 학자로 알려졌던 윤기중이었다. 정인보는 스승과 선배로 모시던 이견방·이건승·박풍서·이법세·이희중 등이 세상을 떠난 뒤로 윤기중에 대해 “옛 친구로 한강 이남에는 그대가 있을 뿐이오, 옛 경기도 한 귀퉁이에서 뜬구름에 목을 늘이고 마음을 그대에게 향하는 자라고는 또한 오직 淸가 남았을 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같은 소론 계라는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인보는 윤기중·윤정중·윤석오 등의 요청에 의해 파평윤씨 노종과 선대의 묘문을 찬술하였고, 또한 윤기중의 조카 윤석오에게 학문과 문장을 가르쳤다. 한편, 서울에서 생활하던 정인보는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1945년 3월 윤기중과 윤석오의 도움으로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에 은거할 수 있었다.

정인보는 은거 소식을 친밀한 몇몇 사람에게 알렸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경북 칠곡 매원의 이만환이었다. 정인보와 이만환의 관계 역시 선대의 인연으로 강화되었다. 정인보의 선조 정태화와 이만환의 선조 이도장 사이에 친교가 있었기에 광주이씨 칠곡파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며, 이만환의 생부 이상기에게는 회갑에 시를 보낼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정인보는 이만환의 시에 대해 품평을 해주거나 화운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만환의 아들의 진학 문제를 상담해주기도 하는 등 이만환 집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다. 이만환 역시 일제의 탄압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인보의 집안 살림을 보살피 주었으며, 해방 후에는 국학대학과 한중문화협회 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인보와 윤기중·이만환 등의 교유 관계는 세교와 문교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단순한 교유를 넘어 일제강점기 탄압을 받던 정인보에게 물질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해방 이후 정인보의 국학 부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즉 정인보와 이들의 관계는 전통적 개념의 세교이자 문교에서 시작되었으나, 해방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했던 정인보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廣州李氏漆谷派世譜』, 『蘭谷存稿』, 『萬家譜』, 〈漆谷 石田 廣州李氏 海隱古宅 典籍 書簡通告類〉, 『坡平尹氏魯宗派譜』.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2. 단행본

정인보, 『蒼園國學散藁』. 서울: 文教社, 1955.
_____, 『蒼園 鄭寅普全集』.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83.
정인보(저), 정양완(역), 『담원문록』 상·중·하. 과주: 태학사,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廣州李氏 仁同張氏 奇託典籍』.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 논문

강석화, 「담원 정인보선생에 대한 연구사 정리」. 『애산학보』 39, 2013, 185~232쪽.
金喜煥, 「제2차 유림단의거 연구: 心山 金昌淑의 활동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38, 2001, 461~485쪽.
송강호, 「國學大學의 滿蒙語教材: 表文化 著, 『蒙古語·滿洲語教科書』」. 『만주연구』
13, 2012, 181~207쪽.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 관계와 교유의 배경: 백낙준·백남운·송진우와의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73, 2016, 35~73쪽.
이남옥, 「정인보의 학문 연원과 조선학 인식」. 『儒學研究』 38, 2017, 213~240쪽.
이지원, 「日帝下 民族文化 認識의 展開와 民族文化運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鄭良婉, 「아버지 蒼園의 세 스승: 學山, 耕齋, 蘭谷」. 『陽明學』 13, 2005, 479~487쪽.
趙東杰, 「年譜를 통해 본 鄭寅普와 白南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389~408쪽.
한시준,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10, 373~
406쪽.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전후 정인보의 교유 관계를 파평윤씨 노종파, 광주이씨 칠곡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정인보는 일제에 저항한 지식인으로 조선학 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일제강점기 조선학 운동과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인보는 소론의 진전을 잇는 인물로 세교와 문교라는 전통적 교유 의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는 해방 전후 파평윤씨 노종파의 윤기중, 광주이씨 칠곡파의 이만환 등과 세교·문교를 계기로 교유하고 있었다.

먼저, 정인보와 파평윤씨 노종파와의 관계는 당시 예학자로 이름난 윤기중 파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 같은 소론계라는 인연을 매개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정인보는 파평윤씨 노종파 인물들과 시문을 주고받았고, 이들의 선조 묘문을 찬술하였으며, 윤기중의 조카 윤석오에게 학문을 전하였다. 한편,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정인보는 1945년 3월 전북 익산군 황화면 중기리에 은거하였는데, 윤기중과 윤석오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정인보는 은거 소식을 친밀한 몇 사람에게만 알렸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광주이씨 칠곡파의 이만환이다.

정인보와 광주이씨 칠곡파와의 관계는 선대의 인연(정태화와 이도장 간의 친교)으로 가능했다. 정인보는 이상기, 이만환과 시를 주고받으며 문교를 이어갔고,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공유했다. 한편, 이만환은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인보의 집안 살림을 보살피 주었으며, 아들의 진학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방 후에 그는 정인보가 주도하는 국학대학 승격과 한중문화협회 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해방 전후 정인보와 파평윤씨 노종파, 광주이씨 칠곡파의 관계는 세교와 문교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단순한 교유를 넘어 이들은 일제에 의해 탄압받던 정인보를 후원하고 해방 이후 정인보가 주도한 국학 부흥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되었다.

투고일 2022. 12. 31.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해방(Korean independence), 정인보(Jeong In-bo), 파평윤씨 노종파 (Noh Jong-pa of Papyeong Yoon Clan), 광주이씨 칠곡파(Chilgok-pa of Gwangju Yi Clan), 윤기중 (Yoon Gi-jung), 윤석오(Yoon Seok-oh), 이만환(Yi Man-hwan), 국학대학(國學大學, The Korean Studies University), 한중문화협회(韓中文化協會, Korea-China Culture Association)

Abstract

A Study on Jeong In-bo's Fellowship Before and After Korean Independence

Yi, Nam-ok

This paper examines Jeong In-bo's fellowship before and after Korean independence, focusing on his relationship with the Noh Jong-pa of the Papyeong Yoon Clan and the Chilgok-pa of the Gwangju Yi Clan. Jeong In-bo was an intellectual who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and presen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Joseon Studies movement (朝鮮學運動). His relationship was centered on figures who had ties with the Joseon Studies Movement and Yeonhui College, the result of focusing on the companionship of intellectuals. However, he was a person who inherited the traditional sense of friendship between Segyo(世交) and Mungyo(文交). H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Segyo and Mungyo with Yoon Gi-jung(Noh Jong-pa of the Papyeong Yoon Clan) and Yi Man-hwan (Chilgok-pa of the Gwangju Yi Clan) before and after Korean Independenc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Jeong In-bo and Papyeong Yoon clan's Noh Jong-pa began with Yoon Gi-jung, who was known as a scholar at the time. He praised Yoon's predecessor's tomb script and educated Yoon Seok-oh, Yoon Gi-jung's nephew, in learning and writing. This was mediated by the same orthodoxy. Meanwhile, Jeong In-bo, who was no longer able to live in Seoul due to Japanese oppression, was able to hide in Junggi-ri, Hwanghwa-myeon, Iksan-gun, Jeollabuk-do, with the help of Yoon Gi-jung and Yoon Seok-oh in March of 1945.

At that time, Jeong In-bo informed only a few people about his whereabouts. One of them was Yi Man-hwan. Due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Jeong In-bo's ancestor Jeong Tae-hwa and Lee Man-hwan's ancestor Yi Do-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 In-bo and Chilgok-pa of the Gwangju Yi clan, represented by Yi Man-hwan, began to become closer. Yi Man-hwan took care of Jeong In-bo's family, which was suffering from Japanese oppression. After Korean independence,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University (國學大學), led by Jeong In-bo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China Cultural Association (韓中文化協會).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 In-bo, Noh Jong-pa of the Papyeong Yoon Clan, and Chilgok-pa of the Gwangju Yi Clan began before Korean Independence through Segyo and Mungyo. However, beyond simple friendship, they supported Jeong In-bo, who had been suppressed by Japanese colonial rule and became comrades in the Korean studies revival movement led by him after Korean Independence.